
創 刊 辭

국어는 우리 민족의 뿌리요 우리 국가를 이루는 기둥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우리 말과 더불어 우리 민족은 성립되었고, 또 오늘날 국어는 우리 사회 생활에서 필수적 수단임과 동시에 온 국민을 하나로 묶는 끈이 되어 있다.

이렇게 국민의 의식과 행동을 지배하는 국어 전반적인 현상과 문제를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국어연구소가 성립되었다. 그리고 그 목표는 우리 말과 글의 역사적 변천 사실을 밝히고 또 우리 말과 글에 대한 체계적 과학적 연구를 전진시키는 데 이바지함과 동시에 우리 온 국민의 언어 생활에 도움을 주어 우리 민족 문화 발전과 국력 양성에 뒷받침이 되는 데 있다고 본다. 그래서 그 중 하나의 사업으로 잡지 「국어생활」을 펴내기로 한 것이다.

언어는 사회의 소산이요 또 그 사회를 반영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정확하고 올바르고 아름다운 말을 쓰는 사회는 올바르고 아름다운 사회가 될 것이요, 그렇지 못하면 혼란된 사회 탁한 사회가 된다고 볼 것이다. 언어는 인간 사회가 그러하듯 방임해 두면 혼탁해 가기 쉽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를 정리하고 정

화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여기에 「국어생활」이 발간되는 목적이 있는 것이다.

「국어생활」에선 우리 일상 생활에서 말과 글에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또는 혼탁된 말을 다듬어 소개하기도 할 것이다. 그 뿐 아니라 국어에 관한 간략한 학문적 지식도 알리고 문학 작품, 속담, 수수께끼도 소개하고자 한다. 이 모두가 국어를 통한 우리 생활의 한 모습이며, 또 이런 일이 국어 생활을 바르게 이끄는 길이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국어생활」은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알리고 지시하는 작업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어 생활에서 온 국민이 서로 느끼고 또 알고 있고 또는 알고 싶은 일을 서로 주고 받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그래서 국어에 관심을 가진 여러분의 좋은 의견 또는 묻고 싶은 일을 적어 보내 주시면 되도록 많은 것을 뽑아 여기 실고자 한다. 말이 인간 사이에 의사 소통의 수단이듯, 「국어생활」도 우리 서로 국어 생활에서 문제점을 주고 받고 해결하는 구실을 맡고자 하는 것이다.
